

한우사육 동향과 관련 정책



이 증 현



정보기획실장

1. 머리말

쇠고기와 생우의 개방일정이 채 두달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 한우사육농가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나날을 보내면서 한치앞을 내다 보지 않는 듯한 자세로 한우를 기르는 농가가 대부분이었으며 한편에서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개량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노력한 농가도 있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는 따져보지 않아도 알만한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곱감 빼먹기식으로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초산우를 비육하고 번식기반을 붕괴시키는 일들

을 거리낌 없이 시도해오고 있었다.

거세우 사양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에 의해 1년에 3~4만여두의 거세우만이 생산되었으며, 다른 농가들은 소비자의 요구와 편리한 사양관리, 그리고 눈앞의 이익추구를 위한 작업이 쉬지않고 계속되었다.

이제 한우사육두수가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번식시킬 암소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우사육 기반조성과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이들과 연계한 고급육생산체제의 구축등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외함께 현재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한우를 기르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하면서 2001년이후의 한우사육을 전망해 보는 것이 좋겠다.

## 2. 한우 사육 동향

### 가. 사육현황

96년말 2,843천두 이었던 한우는 2000년 9월에 1,713천두로서 4년사이에 1,130천두나 사육두수가 감소하였다.

[표 1] 한우사육두수

연도	96.12	97.12	98.12	99.12	2000.9	비고
두수(천)	2,843	2,735	2,383	1,951	1,713	96~2000.9 2,843~1,713 △1,130
비율(%)	100	96.2	83.8	68.7	60.3	

한(육)우 사육농가수는 97년 12월 465천호에서 305천호 3년사이에 160천호나 감소하였다.

감소한 사육농가수는 10두미만 사육농가와 10~49두 사육농가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10두미만 사육농가의 호수는 3년 사이에 127,000호가 줄어들었고(감소농가수의 79.4%) 10~49두 사육농가는 32,400호가 감소하였다.

10두미만 사육농가에서 번식용 암소를 사육하면서 인공수정한 송가지를 생산하였으나 이들의 사육농가호수가 1년에 42,300호씩 줄어들어다는 것은 향후에도 번식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

[표 2] 한(육)우 규모별 사육농가수

연도	97.12(A)	98.12	99.12	2000.9(B)	B/A	사육두수(2000.9)
10두 미만	397(85.4)	374	308	270(88.4)	△32.0	694(40.5)
10~49두	63.4(13.6)	48.3	40.8	31.0(10.2)	△47.3	609(35.6)
50두 이상	4.1(0.9)	5.0	4.8	4.3(1.4)	4.9	409(23.9)
계(%)	465(100)	427	350	305(100)	△34.4	1,71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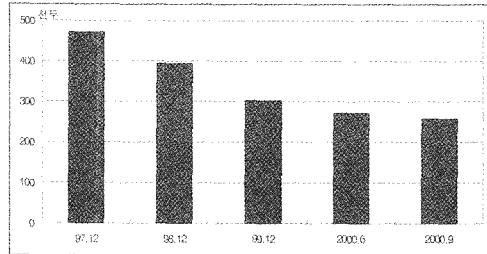
\* 자료 : 농림부

한육우 암소의 연령별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향후 번식을 예측할 수가 있다. 암소 사육두수를 비교할 때 우리는 흔히 현재의 가임암소를 살펴본다.

물론 가임암소도 97년 12월 1,219천두에서 2000년 9월에는 738천두로 481천두가 감소하였다. (60.5%)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항은 1세미만의 한우 암소가 많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97년 12월에 1세미만두수가 471천두에서 2000년 9월에는 258천두로 213천두나 감소하였다. 두수로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비율로 본다면 97년12월에 비하여 54.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번식가능한 번식용 밀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표 3] 1세미만 암소 사육두수



연도별	97.12	98.12	99.12	2000	2000.9
두수	471	393	303	271	258
비율%	100	83.4	64.3	57.5	54.8

[표 4] 한육우 연령별 사육두수(암소)

	97.12(A)	98.12	99.12	2000(B)	B/A
1세미만	471	393	303	258	△45.2
1~2세	275	296	256	199	△27.7
2세이상	1,082	913	726	639	△40.9
계	1,828	1,603	1,284	1,096	△40.0
가임암소	1,219	1,061	854	738	△39.4

\* 주 : 가임암소=2세이상(639)+1-2세(199×0.5)=738천두  
자료 : 농림부

이렇게 가임암소와 1세미만 암송아지등 한우사육두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한우의 산지 가격은 큰 암소가격과 암송아지가격의 상승폭을 올려 놓고 있다.

[표 5]를 살펴보면 98년 7월에 비하여 모든 소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은 암송아지로서 380천원에서 2000년 10월 1,223천원으로 320%(약 3.2배)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한우 산지 가격 동향

	97	98.7(A)	99.12	2000.10.16(B)	B/A
큰 수소	2.426	1.681	3.098	2.857	170.0
큰 암소	2.159	1.607	2.959	2.982	185.6
수송아지	1.046	465	1.302	1.330	286.0
암송아지	733	380	948	1.223	321.8

## 나. 쇠고기 소비동향

국내 쇠고기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쇠고기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쇠고기 소비량은 95년 이후 증가하다가 IMF시기인 98년에 잠시 감소되었으며 99년에는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국민 경제가 향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다른 육류소비보다는 쇠고기 소비의 증가가 다른 고기보다도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쇠고기 소비를 좀더 증가시킬수 있는 방안은 우리 생산자들이 믿을만한 브랜드를 만들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고기를 생산하여 신선한 상태로 공급한다면 보다 많은 양의 한우고기 소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몇 년전에 젓소고기 전문판매점(구 축협중앙회 판매장)을 개설 하였으나 소비자의 선택 기호도 등에서 호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국내산 한우고기와 수입육의 상표를 소비자까지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많은 한우고기가 소비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소비자의 한우고기 선택방향은 안전성, 신선도, 맛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질것이기 때문에 우리 양축가에서는 쇠고기 생산에 앞서 이러한 소비자의 기호도를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표 6] 쇠고기 수입동향

	95	97	98	99
총 소비량	301	362	345	393
국내산	155	228	260	240
수입육	146	134	85	153
1인당(kg)	6.7	7.9	7.4	8.4
지급률(%)	51.4	63.0	75.4	61.1

## 다. 고급육 생산현황

93년도 UR타결이후 국내 한우사육농가 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 외에도 0-157, 광우병, 구제역 등 질병문제 때문에 도 피를 말리는 시련을 겪은바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수입개방이후에도 한우생산자가 살아남을수가 있으며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소득을 향상시키면서 소를 키울수가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3년동안 걸리는 번식을 하기 겁이나서 단기 비육을 선호하게 되었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맛있는 고기 선호에 따라서 젊은 암소를 비육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생산자도 반성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정작 고급 육 생산에 얼마만큼이나 힘을 기울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7] 성별 1등급이상 출현 현황(%)

	99	6	9	2000누계
암 소	27.6	41.2	34.5	37.8
수 소	1.5	2.3	0.9	1.7
거 세	52.6	58.3	49.1	52.7
전 체	18.8	26.9	20.2	24.1

1등급 이상 출현 현황을 살펴보면 거세를 한 소라도 1등급(1.1+) 출현율은 52.7%이며 암소는 37.8%이다. 단순하게 살펴보면 거세우의 1등급 비율이 높다.

그러나 거세한 소가 어느 만큼 도축되어 거래되었는가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 본다면 우리는 1등급이상의 고급육생산에 힘을 기울이지는 않고 오히려 암소를 많이 도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8]을 살펴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도축두수 542,349두중에서 암소도축 308,922인데 그 중에서 1등급이상 출현한 소는 118,477두 이었으면 거세우 출현두수는 전체가 12,031두로서 그 두수는 매우 미약한 상태가 된다.

[표 8] 성별 등급별 출하두수 (2000년1월~8월)

	두 수 (두)				비 율 (%)			
	암	수	거세	계	암	수	거세	계
1+	31.342	231	3.830	35.403	10.1	0.1	16.9	6.5
1	87.135	3.591	8.201	98.927	28.2	1.7	36.3	18.3
2	127.035	40.854	8.347	176.236	41.1	19.4	36.9	32.5
3	58.295	165.652	2.215	226.162	18.9	78.6	9.8	41.7
D	5.115	492	14	5.621	1.7	0.2	0.1	1.0
계	308.922	210.820	22.607	542.349	100	100	100	100

\* 자료 : 농림부

암소와 거세우의 비율로 살펴본다면 상대적으로 출현두수가 10.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세우의 판정두수는 비록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98년, 99년에도 3~4만두 밖에 출현하지 않았으며 전체 출현 두수 대비를 살펴본다면 전체 도축우중 4.3~4.4%를 차지하며 이 도축우중에서 52~53%의 1등급 출현이라고 한다면 거세우 1등급의 전국공급 두수는 결국 1년간 모두 합해야 2만두 내외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 된다.

[표 9] 한우 등급 판정두수

	98년 (A)		99년 (B)		증감(B-A)	
	두수	%	두수	%	두수	%
전체	947,510	100	873,094	100	-74,416	-
암	470,765	49.7	507,009	58.1	36,244	8.4
수	435,778	46.0	327,736	37.5	-107,040	-8.5
거세	40,967	4.3	38,347	4.4	-2,620	0.1

\* 자료 : 축산물 등급판정보고서

한우등급판정두수는 98년 947천두, 99년 873천두 인데 이중에서 거세우는 1년에 1등급이상의 고급육이 20,000두 내외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에 노력을 하는 농가는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한우고급육 생산을 말로만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협회에서는 UR협상타결후 1993년부터 2년에 1회씩 한우능력평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실 한우 고급육생산의 원조는 한우능력평가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회원들임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일반 한우 수소를 키워도 1등급이상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두수는 도축한두수의 2%미만이 되기 때문에 거세를 하지않고 1등급을 만들려는 것은 현재시점으로 어렵없는 이야기이다.

### 3. 한우 정책의 의지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중에서 국민심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품목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우’와 ‘쌀’을 꼽을 수있다.

쌀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먹거리 이기 때문에 두말 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가 기르고 있는 한우는 단순히 우리 국민에게 질 좋은 단백질 공급원 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오천년을 도도히 지켜온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산물인 것이다. 가깝게 경운기등 기계화가 되기 이전에 농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일꾼이며 경운기나 트랙터마냥 기름을 먹지 않고도 논도 갈고 밭도 갈며 짐도 운반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농촌에서 목돈을 만져보는 유일한 수단이지 않는가?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용도가 변경되어 단순히 고기만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으

나 아직까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정답고 친근미가 넘치는 것이 한우이지 않는가?

이제 그나마도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가운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더 많은 숫자가 줄어들어 이제는 그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의 한우사업백서(97.7)등을 보아도 우리가 2001년 수입개방시의 적정사육두수를 250~260만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간 75~80만두의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110~120만두의 암소 번식 가능두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다. 아울러 한우자급율은 국내산 40% 이상수준으로 유지하며 1등급 고급육 출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운적이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사육두수, 암소번식가능두수, 송아지 생산, 고급육생산등에서 현재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우 산업기반 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몇가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였다.

#### 가. 송아지 생산 안정제

2001년부터 생우와 쇠고기수입 자유화의 영향으로 송아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영세한 27만호의 번식농가를 중심으로 번식용 암소 사육의 포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번식 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32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2000년부터 전면적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한우번식농가의 안정판 역할을

하고 소 가격 하락의 충격에서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송아지를 생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번식농가에서는 가능한 모두 이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2001년부터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사업시행이 약간 바뀌게 되는데 중전의 안정 기준가격은 900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송아지 가격하락시 1두당 지원 한도액도 200천원에서 250천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니까 송아지 가격이 130~140만원정도 되는 요즘에는 관계없지만 송아지 가격이 75만원까지 하락한다 하여도 100만원 까지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표 10]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 변경안 요약

구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	두당900천원	두당1000천원	한우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시책강화
지급한도금액	두당200천원	두당25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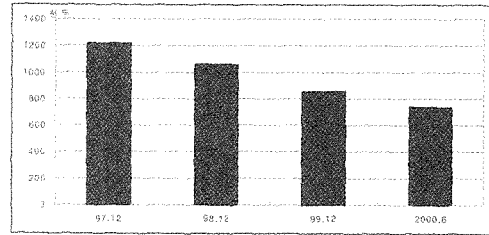
#### 나. 한우 다산 장려금

최근 암소 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도 번식가능한 가임암소 사육두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가임암소중에서도 1-2산후 비육출하 하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두수가 계속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한우 번식기반의 붕괴우려가 있어 번식가능한 암소가 송아지를 보다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1~2산을 하는 암소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3산 이후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000년 11월 1일 이후에는 3~4산우에 200천원, 5산이상은 300천원씩 지급하되 5산 이상부터는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표 11] 연도 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연도별	97.12	98.12	99.12	2000.6
사육두수	1219	1061	854	738
비율	100	87.0	70.0	60.5

에 가입하고 정확한 산차 기록이 있는 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우 이외에는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번식가능한 암소가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도록 정부시책을 강화하고 생산자는 좋은 송아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인공수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한우 다산 장려금 제도로 장려금 지급규모가 더늘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송아지 가격도 어느정도 회복(130~140만원선)하였으니 송아지생산기반을 유지시킬 수 있을것으로 본다.

[표 12] 한우 다산 장려금 변경안 요약

구분	현행(2000)	변경(2000.11.1이후)	변경사유
한우 다산 장려금 지급액	• 두당 3-4산 100천원 • 5산 이상 200천원	• 두당 3-4산 200천원 • 5산 이상 300천원	한우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시책 강화
농가 홍보		• 능가 인공수정 증명서를 보관토록 적극 홍보 (자연수정제외)	

\* 자료 : 농림부

일본에서는 암소 1두당 송아지를 7두이상 생산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우리도 젊은 암소를 비육시켜 출하하는 것보다는 수송아지를 전두수 거세하여 고급육생산을 유도하고 암

소는 전두수 송아지 생산에 활용해야한다. 물론 소를 사육하다보면 송아지 생산을 할 수 없게되는 암소도 있을수 있다. 이런소는 할수 없이 비육을 하여야 하겠지만 번식가능한 암소는 적극적으로 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사육되어야 한다.

### 다. 한우 거세 장려금

전편에서 언급 했지만 한우 거세우 출하두수는 연간 4만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001년 목표중 1등급 출현비율 40%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암소 비육만 실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본다.

도축두수 중에 거세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상태에서 거세장려금을 지원하면 고급육도 생산하고 번식용 암소를 비육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종모우나 후보 종모우등 특별한 용도이외는 모든 수송아지를 거세하고 있다. (95%이상)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의식은 거세하면 증체율이 낮다는(8~12%) 의식과 사육기간이 연장된다는(3~4개월) 부담감, 거세우를 사육할 자신감이 없는 등에 의해서 거세를 기대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군한우(대표 김용봉)에서는 거세우가 결코 비거세우보다 성장이 늦지 않는다는 것을 시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능력평가(1~4회)에서 소득을 살펴보면 거세하여 비육한 결과 비 거세우에 비해서 수익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거세우를 사육하는 양축농가들은

거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세를 실시한다. 이또한 보다 거세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표 13] 거세 장려금 시행지침 변경안

구분	현행(2000)	변경(2000. 11.1이후)	변경사유
• 한우 거세 장려금 지급액	• 두당 100천원 - 출발 기금 100%	• 두당 200천원 - 출발 기금 70% - 지방비 30%	•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 - 정책 강화
• 지역별 한우사업 추진 협의회 명칭	사업추진 협의회	• 한우 산업 발전 협의회	• 협의회 의 협의 내용법의 확대 - 지역 한우 산업 진반에 걸친 협의

- 우수축 출하포상금을 2001년 에는 생산 포상금으로 변경하고 2002년부터는 거세 장려금으로 통합
- 우수축 출하포상금은 거세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 소가 출하되는 2001년 말까지 지급하고 2002년 부터는 거세 장려금으로 단일화 할 계획임.

[표 14] 우수축 생산 포상금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사업명 지급대상자	우수축 출하 포상금 우수축 출하자	우수축 생산 포상금 우수축 계통 출하 하는 농가	포상금 지급액 • A1+, A1:150천원 • B1+, B1:100천원

## 4. 향후의 대응

정부에서는 한우사업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한우사육기반의 유지를 위하여 새로이 변하는 정책의 일부분을 소개 했지만 이외에도 한우 개량농가 육성사업은 계속해서 지원되며 이외에 고능력 암소의 발굴을 위한 생산체단층 촬영 사업, 고급육생산

조기발견을 위한 DNA사업, 한우현장 후대 검정사업 등이 신규로 펼쳐진다.

물론 이러한 사업의 일부는 직접적으로 한우 사육농가에게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우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져 있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양축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한우 산업 기반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렵다. 아울러 생산기반의 축소와 비육밀소의 부족등의 이유로 비육산업도 규모의 확대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지역적으로 자기지역에서 생산기반을 유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도 지역단위 환경에 알맞는 개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의확산으로 시 군별 또는 광역적으로 2~3개 시군을 통합하여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한우고기를 생산하여 브랜드를 만들고 대도시의 유통회사와 판매전략을 구성하여 유통을 합리화시켜서 지역별 한우사육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시 군별 한우생산기반 안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지역의 번식가능한 암소두수를 확인하여 선발,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등록된 한우는 집단적으로 고급육생산이 가능한 육질 종모우로 교배를 계획적으

로 시켜야 한다.

여기서 태어난 송아지중 암 송아지는 번식용 밀소로 활용하고 수송아지는 관내의 비육농가에서 비육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육농가에서 비육한 한우는 시·군에서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의 브랜드로 공급하거나 지역특산물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생산자의 이름이 판매자에게 까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 한우 산업기반의 안정과 지역 특산품을 만들면서 한우 사육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살 길ियो 지상 목표일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고급 단백질 식품인 쇠고기를 공급하여 가면서 한우가 이땅에서 영원토록 살아 남으면서 우리의 옆에 있어주기를 바란다.